

# KB '허인호' 1년... 글로벌 도전-리딩뱅크 수성 '콜라보'



허인 KB국민은행장

2위와 격차 벌리며 올해 목표 달성  
허 행장의 디지털화 중심은 '사람'  
동남아 등 적극 글로벌 진출 모색

허인 KB국민은행장의 지난 1주년은 도전과 수성의 콜라보레이션이었다.

지주회장과 은행장 분리 첫 해에 업계 2위와의 격차를 더 벌리며 올해 초 목표로 제시했던 '지속가능한 금융의 금메달 리스트'를 달성했다. 동시에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디지털 전환을 대대적으로 선포하고, 글로벌 진출도 더 이상 과제가 아닌 현재진행형으로 만들었다.

◆디지털화 가속페달 밟는 '젊은' 행장

허 행장은 1961년생이다. 시중 은행장 가운데 처음으로 1960년대생으로 세대교체가 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디지털 금융 시대를 맞아 조직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위기감의 결과기도 했다.

허 행장은 먼저 방탄소년단(BTS)을 모델로 KB국민은행의 이미지부터 역동적으로 확보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방탄소년단의 '도전, 혁신, 글로벌'이라는 성공 DNA가 KB국민은행이 추구하는 도전정신과 맞아 떨어졌다"며 "코리아 베스트가 글로벌 베스트가 될 수 있다는 도전정신이 KB국민은행 브랜드정체성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선포한 KB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전략은 디지털화의 가속페달이 됐다.

허 행장은 취임하면서부터 "은행 안에 또 다른 은행(Bank in Bank)'인 디지털 뱅크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핵심전략이자 미래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창립 17주년 기념식에서 디지털 혁신 조직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대형 플랫폼 기업이 은행들의 최대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전기

와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었듯이 디지털은 4차 산업혁명의 새 물결이며 변화는 선택이 아닌 우리의 숙명(宿命)"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화는 온라인과 모바일의 비대면 채널을 확대하는 수준을 넘어 인력, 프로세스, 문화 등 조직 전체에 걸쳐서 추진할 방침이다.

허 행장의 디지털화는 '사람'이 중심이다. 그에게 디지털은 고객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해주는 동시에, 직원들 역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이다. 오는 2025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디지털 관련 투자 뿐만 아니라 4000명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제시한 것도 그래서다.

◆변화 버림목된 '리딩뱅크'

허 행장이 취임과 함께 전면에 내세웠던 것은 세 가지였다. ▲디지털 혁신과 ▲고객중심 ▲글로벌 진출. 이를 흔들리지 않고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적이 든든하게 뒷받침된 덕분이다.

맞수 신한은행을 제치고 1위 자리를 수성한 것은 물론 격차를 더 벌려냈다.

KB국민은행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은 2조79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했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KB국민은행이 신한은행을 1454억원 차이로 역전한 데 이어 올해는 격차가 1628억원으로 커졌다.

글로벌 진출은 1년 만에 더 이상 해묵은 과제가 아닌 현재진행형이 됐다. 런던 현지법인인 지점으로 전환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재진출과 함께 캄보디아에서는 영업망을 확장했다.

허 행장은 "글로벌은 런던현지법인의 지점 전환으로 '런던-홍콩-북경-동경-뉴욕'을 잇는 KB의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한층 강화됐다"며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 해외진출도 적극 모색 중에 있어 내년에는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스미싱 사기, 이젠 AI가 잡아낸다

### 금감원-KB국민은행-아마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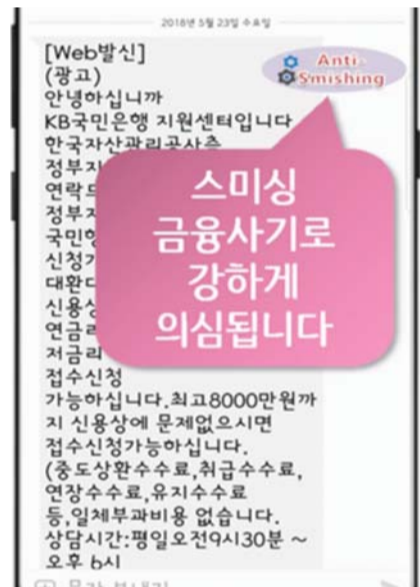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 및 아마존 웹서비스와 공동으로 휴대폰으로 수신되는 문자메시지가 스미싱(Smishing)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금융사기를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 피해 발생 건수로 보면 문자 메시지(Text)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직접 전화통화(Voice) 방식을 웃돌면서 향후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며 "협업팀을 구성하고 약 8개월 간의 공동 연구와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스미싱 방지 AI 알고리즘의 개발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AI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분석해 스미싱 여부를 판별하면서 금융사기 시도가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AI 알고리즘은 오는 29일 금감원이 개최하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후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에 무상으로 제공



스미싱 차단 앱 구현 모습

·공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전화번호 비교·분석으로 스미싱을 판별하는 등 다양한 AI를 개발해 신·변종 전자 금융사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 신남방정책 맞춰 泰 금융시장 진출 가속화

### 금감원, 태국 중앙은행 초청 세미나 양국 감독당국간 협력 강화 등 당부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태국 중앙은행 초청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태국 중앙은행 금융기관영업 감독국장, 금융기관전략국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태국은 아세안 지역에서 경제규모가 두 번째로 큰 국가지만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 개방을 제한적으로 하면서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 실적이 미미한 곳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의 본격적인 신남방정책 추진으로 아세안 지역과의 교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태국은 2021년 이후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국내 금융회사의 태

### 〈태국 진출 국내 금융회사 현황〉

금융회사명	해외지점명	진출형태	개설 시기
산업은행	방콕사무소	사무소	2013년 12월
삼성생명	Thai Samsung life Insurance	현지법인	1997년 6월
KTB투자증권	KTB Securities (Thailand)	현지법인	2008년 7월

/자료=금융감독원

국 진출시 필요한 현지 감독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양국 감독당국간의 협력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태국 금융시장 현황과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한 인허가 정책 등에 대해 설명한 이후 태국 중앙은행 감독 담당자들과 현지 진출 관련 개별적인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국내 주요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해외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태국 중앙은행 담당자들은 초청기간 동안 금감원을 방문해 실무진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금융감독 제도 및 최근 감독 이슈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했다. 또 은행 연합회 및 국내 은행 본점을 직접 방문해 국내 은행산업 동향과 해외 진출 및 영업 현황 등에 대한 설명도 청취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진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를 대상으로 감독당국 초청 세미나를 열어 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 우리은행 베트남 특화 '직접 해외송금' 서비스

우리은행은 최단 6시간 내에 현지통화로 받을 수 있는 '베트남 동(VND) 직접 해외송금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베트남 동(VND) 직접 해외송금 서비스'는 베트남우리은행으로 직접 송금해 당일 송금 확인이 가능하고, 최단 6시간 내에 현지에서 받을 수 있는 베트남 특화 송금 서비스다. 개인과 기업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영업점과 ATM 등을 이용한 다 이렉트 해외송금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송금수수료는 일반 해외 송금수수료와 동일하고, 베트남우리은행 계좌로 받으면 중계수수료가 50% 우대돼 1만원 가량 저렴하다.

기존 송금방식은 베트남으로 송금할 경우 주로 미국 달러(USD)로 송금하고, 베트남에서 동(VND)으로 재환전을 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는 베트남 동(VND)으로 직접 송금해 현지 수령금액을 확정할



수 있고, 재환전을 하지 않아 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과 한국의 베트남 근로자들의 송금 수요를 파악해 특화 송금서비스를 도입"했다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사정에 맞는 다양한 송금 서비스와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 수출입은행 10억달러 글로벌본드 발행 성공

한국수출입은행은 20일 새벽 전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총 1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수인이 올해 들어 두 번째 발행하는 글로벌본드다.

이날 발행된 글로벌본드는 듀얼 트랜치(Dual Tranche·만기 및 금리조건이 다른 2개의 채권을 동시에 발행하는 방식) 구조다. 3년 만기 고정금리 5억 달러와 5년 만기 고정금리 5억 달러로 이뤄졌다.

금리는 3년 만기 고정금리 채권의 경우 미국 3년 만기 국채금리에 0.675%, 5년 만기 고정금리 채권의 경우 미국 5년 만기 국채금리에 0.875%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번 채권 발행은 어려운 시장 환경속에서 이뤄졌다.

수은 관계자는 "무역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와 유가 불안정 등에 따라 주요 증

시가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계획한 발행 시점을 수차례 연기하며 시장을 모니터링하다가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는 시점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채권발행에는 전 세계 약 90개국의 투자자가 37억 달러 규모를 주문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역별 투자자 분포(투자자 배경기준)를 보면 3년 만기 고정금리 채권의 경우 아시아 25%, 미국 15%, 유럽 등이 60%를 차지했다. 5년 만기 고정금리 채권의 경우 아시아 30%, 미국 15%, 유럽 등 55%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채권 발행에는 각국 중앙은행, 국부펀드 및 국제기구 등 초우량 투자자들의 주문이 많았다. 초우량 투자자들의 투자비중은 3년 트랜치 70%, 5년 트랜치 50%에 달한다. 최근 한국물 발행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안상미 기자

### KB금융

### 협업 플랫폼 'CLAYON' 오픈

KB금융그룹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외부와의 협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클레이온(CLAYON)' 플랫폼을 오픈했다고 20일 밝혔다.

'CLAYON'은 클라우드(Cloud)와 플레이(Play), 온(On)의 합성어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내부직원과 외부의 다양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CLAYON'은 클라우드 개발환경과 웹 포털로 구성된다. 주요 기능은 ▲서비스 개발자가 원하는 개발환경을 간편하게 제공 ▲개발된 서비스와 솔루션을 등록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체계 ▲동영상을 등록하고 다룬받을 수 있는 환경 ▲협업을 통한 일하는 방식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협업 툴 등이 있다.

/안상미 기자